

研究論文

국민국가와 '화랑도'

- 애국개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

정 종 현*

I. 문제의 제기	IV. 결론
II. 식민지 시기의 '화랑도' 담론	<참고문헌>
III. 해방 이후 국민국가 건설과 '화랑도' 담론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삶의 규범, 관습,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전통이 존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선택되고, 발명된 과거인 경우가 허다하다. 전통의 형성에 작용한 현재의 조작적 행위에 주목한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전통은 현재라는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라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¹⁾ 현재 한국인에게 '화랑'은 한국적인 정신을 대표하는 표상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화랑' 이야기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의 애국개몽기에 이상적인 국민상의 원천으로 소환된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 지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전임연구원, 현대문학 전공(izai@dreamwiz.com).

1) 전통의 구성적 성격과 '만들어진 전통'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에릭 홉스봄(외) 박지향·장문석(옮김), 『만들어진 전통』(휴머니스트, 2004);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마 왕숙영(옮김), 『창조된 고전』(소명출판, 2002); Vlastos, Syephen, ed., *Mirror of Modernity-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이성시/박경희(옮김), 『만들어진 고대』(삼인, 2001).

식민들은 ‘화랑’을 개인의 도덕적 완성의 모델이자 ‘국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국민의 자질로서 소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화랑’은 근대 한국의 자기구성 과정에서 100여년 동안 변주되며 만들어진 전통 표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기에 점증하는 외세의 위협 속에서 화랑도는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숭무(崇武)’의 정신을 강조하는 일련의 담론 속에서 소환되었다. 화랑도 혹은 무사의 정신은 망국의 표상으로 맥락화되고 있던 사대주의와 ‘유교’에 대비하여, 이상적인 고대에 존재했던 자주적인 조선 본래의 정신으로 정의되었다. 애국계몽기 각종 학회지의 영웅대담론과 영웅전기의 입전 대상으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이순신 등과 함께 신라의 화랑이 소환되는 것은 한 사례이다.²⁾ 특히 단재 신채호는 이러한 독립, 자주 정신과 무인 정신을 결합시켜 ‘낭가사상’으로 실체화하고 있다. 단재가 화랑도 등에 기반한 조선 고대의 무사정신을 조선의 ‘국수(國粹)’로 실체화하고 그 대립자로 유교의 문약을 대비시킨 이래 이러한 도식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역사 내러티브의 기본 문법이 되었다.

근대 초창기 이상적인 국민의 형상으로 소환된 ‘화랑도’는 고정된 형태로 전승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인이 경험한 국민국가의 형태와 소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상되었다. 화랑에 대한 단편적인 과거의 사료들을 해석하고 맥락화하는 역사 서술자의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 ‘화랑도’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형태를 달리하였다.³⁾ 대한제국기 자주독립의 정신을 표상했던 일련의 무사상과 함께 등장한 화랑상, 식민지 시기 초·중엽 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본인 사학자들이 경험했던 고대 신라의 영역, 그리고 ‘조선적인 것’을 구성하려는 내셔널리즘의 욕망과 제국의 담론이 교차하고 있는 화랑도 담론, 식민지 말기 총동원체제에서 내선일체와 동원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화랑도 표상 등은 그 양상을 달리한다. 국가에 대한 귀속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공통된 속성이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시

2) ‘위인선양’을 통해 독립, 국민·민족정신을 강화하는 한말 애국계몽기의 국수적 민족문화인식에 대해서는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서울대 박사논문(2004), 55-60쪽 참조.

3) 초창기 화랑도 담론의 구축에는 조선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참여했다. 林泰輔 『朝鮮史』(1892); 『朝鮮通史』(1892); 福田芳之助 『新羅史』(1913);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1943) 등은 신라와 화랑 표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저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를 관통하는 화랑도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국가에 따라 이 '충'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충의 귀속의 대상 역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 이래 '화랑도'가 어떻게 조선 고유의 정신으로 본질화·실체화 되는가, 또 그것이 각각의 시기에 각기 다른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화랑도'가 조선 본래의 정신을 대표하는 민족적인 전통으로 구성되고, 이상적인 개인상·국민상으로 주조된 식민지 시기의 화랑이야기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논의가 당대 제국일본의 동양사⁴⁾ 및 동양론⁵⁾의 구상과 중층적으로 맺고 있는 길항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화랑도가 조선의 자기구성에 활용된 표상인 동시에 내선일체와 동원이데올로기로 활용된 제국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던, 제국 민족의 경계에 위치한 담론이었음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해방기 좌우파의 화랑도 담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원류로서 화랑도를 이념화하는 작업을 식민지 시기의 화랑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화랑' 표상의 사례들을 추출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의 만들어진 '전통'론의 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Tanaka, Stefan, *Japan's Orient: Rendering Past into Histo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문학과 지성사, 2004) 참조

5) 이 글에서 사용하는 '동양론'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제국인 조선과 일본에서 1930년대를 전후해서 본격화한 근대 비판과, 근대 이후의 시대 원리를 모색했던 일련의 논의를 의미한다. 근대·서구를 하나의 시대원리로 상징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했다. 문화유형학적 이항대립에 기초한 동양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전환기, 전체주의, 비합리주의에 대한 30년대 이후의 논의들은 서구적 근대성의 위기와 파탄을 전제로 새로운 시대원리를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근대 이후의 신원리를 '동양'으로 표상되는 시·공간에서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광의의 의미에서 '동양론'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동양론에 대해서는 정중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2005)을 참조할 것.

II. 식민지 시기의 ‘화랑도’담론

1. 제국과 민족의 경계와 ‘화랑도’담론

단재 신채호,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자산 안확, 무애 양주동 등 한국의 아카데미즘이 ‘국학적’ 전통의 시원으로 삼는 문인들에게서는 ‘고대’에 대한 어떤 공통된 감각과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 초창기의 대표적인 사학자였던 단재는 한국 근대 내셔널리즘의 정초자로 간주된다. 단재는 만주를 답파하고 저술한 『朝鮮上古史』 및 많은 사론(史論)에서 고구려, 발해의 기상을 숭상하고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을 애석해 했다. 단재의 내셔널리즘에서 ‘신라’는 사대(事大)와 민족 쇠퇴의 표본이다. 그러나 단재는 ‘신라’ 전체를 ‘모화(慕華)’와 사대주의의 표상으로 일반화하지는 않았다. 단재에 따르면, ‘신라’ 고유의 풍류도·낭가 사상은 ‘조선’ 국혼의 원류와 통하며, 이 원류적인 것이 중국화에 의해 퇴색되고 쇠퇴함으로써 조선 민족이 쇠락하게 된다. 묘청의 난을 분기점으로 조선사를 양분하고 있는 「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⁶⁾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화랑도는 조선 문화의 ‘본래적인 것(國粹)’을 대표하는 낭가사상으로 제시되며, 그것이 이후 모화사상에 의해 쇠락했다는 것이 단재 사학의 핵심적인 내러티브이다.⁷⁾

흥미로운 것은 단재의 ‘고대’ 표상이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인 이광수의 논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춘원이 ‘조선문학’의 개념을 속문주의에 입각해서 ‘조선어’로 된 문학만을 ‘조선문학’이라고 강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목할 것은 춘원이 ‘조선문학’의 속문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논법에서 활용하는 ‘고대’에 대한 인식이다. 이광수의 논의를 요약하면 “신라에는 문학도 미술도 발달한 시대”가 있었고, “삼국유사 『균여전』에는 당시 아름다운 시편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진성여왕 시대에는 「三代目」이라는 칙선가집”까지 있었는데,

6) 신채호, 「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 『朝鮮史研究草』(1930); 『단재신채호전집』(中)(형설출판사, 1972).

7) 단재의 초창기 사론은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국가주의적 문명관’에 입각한 ‘國粹’ 사상을 펴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자강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한다. 단재를 포함한 한말 일제 초기의 국수적 민족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이지원 앞의 논문 2장을 참조할 것.

“고려 이후 조선에 한문학이 성하게 됨으로 본처(本處) 지나에 있어서 칭찬을 받게까지 된 문인 시인을 배출하였으나 조선어의 조선문학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⁸⁾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수는 ‘조선문학/한문학’의 이항대립을 ‘조선정신 사대주의’로 전환시킨다. 이광수의 경우 조선문학을 ‘조선어 만의 문학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언어 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선일체를 주창하는 ‘반민족적’인 예술의 맥락에서도 근대 초창기 이래의 내셔널리즘의 담론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朝鮮文化の將來」⁹⁾에서 이광수는 내선일체의 당위를 일본과 조선 고대사의 원류의 동일성에서 찾으며 ‘신라’를 단재와 동일한 담론 구조 안에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풍류/국선도라고 불릴 수 있는 ‘신라’ 본래의 정신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당문화와 유교의 침입으로 쇠퇴하여 문화의 본래성을 상실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는 문화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 조선문화의 나아갈 길이며 ‘다행히’ 그 본원성을 회복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본원성과 맞닿아 있기에 현재의 ‘내선일체’에 충실한 것이 조선 문화의 본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25년경부터 ‘불함문화권’을 제창했던 최남선 역시 고대 동아시아에 중국문화와 성격을 달리하는 단군 중심의 문화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고증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이것은 단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 역사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해 민족적 정체성(주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일본 아카데미즘의 기획인 ‘일선동원론’에 부합되는 측면이 상존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남선은 1934년 『神ながらの昔を憶ふ』¹⁰⁾라는 팜플렛에서 ‘동방문화권’이라는 일선동원론의 틀을 제시한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일본과 조선은 혈연관계의 유사성보다도 더 강력한 문화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 문화적 연계를 ‘동방문화권’이라는 ‘북계(北系) 문화지대’ 전체로 확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키르키스 광원에서 몽고, 시베리아, 만주, 조선반도와 ‘내지, 유구를 포괄하는 공간과 인종·문화는 동방문화권으로 동일화된다. 이러한 동일화 속에서 일본 고신도의 특성과 건국신화들이 조선

8) 이광수, 「朝鮮의 文學」, 《삼천리》 1933. 3, 12 쪽

9) 이광수, 「朝鮮文化の將來」(日文), 《總動員》 1940 신년호

10) 『神ながらの昔を憶ふ』은 김병걸·김규동(편), 『친일문학작품선집』(실천문학사, 1986), 104~113쪽에 「신의 뜻 그대로의 옛날을 생각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수록되어 있다.

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강력한 문화적 동일자로 동방문화권을 연결시키고, ‘비아세아적 위협’에 직면한 시국의 중대함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이 고대문화의 본원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

이들 논자들의 사론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대’에 대한 공통적인 감각과 그에 바탕을 둔 역사 내러티브의 유사성을 확인할 필요 때문이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선적인 것’의 핵심을 낱가, 풍류, 국선도, 동방정신 등의 ‘화랑도’의 이매(異畵)를 통해 명명하며 본질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염되지 않은 순정한 형태의 ‘조선적인 정산’을 본질화·실체화한 후에 전개되는 이러한 담론은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고대 일본에 실정성을 부여했던 사유방식과 유사하다. 단재, 춘원, 육당 등이 조선사를 바라보는 내러티브는 출발부터 당대 일본 동양사학이 주조해낸 담론과 동종의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물론 단재 사론의 담론구조를 그대로 일본 동양사학 및 동양주의 학문 담론을 내면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약이다. 단재의 고대사론은 일본 동양사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 내셔널리즘의 특성이 제국의 논리로 온전히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단재의 고대사론과 역사인식은 일본의 동양사학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또한 근대 내셔널리즘의 작동원리라는 측면에서 낭만적 내셔널리즘의 모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혁명선언」¹²⁾으로 대표되는 아나키즘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된 지반이기도 하다.¹³⁾ 그렇지만 한국 내셔널리즘의 정수로 고평되는 단재의 담론이 식민지배국인 일본의 학문 패러다임과 유사한 동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지 상황에서의 내셔

11) 불함문화론에서 ‘동방문화권을 통한 일선동원론으로 전환한 최남선의 조선사에서 단군신화는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보증하는 건국신화에서 일본 고신도와 동일한 계열의 조선 고신도로 맥락이 전이된다. ‘단군’을 강조하는 것이 늘 민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신화로 보는가, 역사로 보는가에 따라 조선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신앙운동으로서의 ‘단군 숭배’도 그 맥락에 따라 민족주의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제국의 논리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샷사 미츠야키(佐佐充昭),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대중교·단군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2003) 참조.

12)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단재 신채호 전집』(下)(형설출판사 1987).

13)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역사비평사, 2003), 214쪽에 따르면, 신채호는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입을 방어하는 도구로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회의했으며, 이러한 회의가 1920년대 아나키즘 수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널리즘과 제국의 담론은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단재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의 담론을 약간만 뒤틀면 그대로 식민통치를 합리화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적 전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본이 현실의 식민지 정책에 적용한 학문적 담론은 그 적절한 사례이다. 일본 식민지 정책의 근간이었던 동화정책과 '내선일체론'의 근거인 '동문동종론(同文同種論)'에는 “일본인을 중국인화한 것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껍질을 벗겨버린다면 본래의 일본인이 될 것”¹⁴⁾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일본의 동양사학의 담론에 저항하며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 본래의 정신'을 실체화하는데 화랑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였지만, 그것은 제국 담론에 포섭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였다.

신채호와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의 동시대인들 중 삶의 행보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인물이다. 그러나 고대 문화에 대한 담론 구조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현재의 '집단적 주체', 근대 조선인의 정체성을 내러티브화하는 방식은 거의 같은 발화라고 보일만큼 유사하다. 낭가/풍류/국선도/화랑도가 조선문화의 고유한 기원이며 이원형적인 것이 쇠락하고 퇴행한 것은 '지나화(당문화, 유교 등의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단재와 춘원, 육당은 공유하고 있다. 단재의 경우는 고대적인 것, 기원적인 것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적 내셔널리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광수와 최남선의 경우에는 '내선일체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고대' 표상이 위치하는 맥락에 따라서 그것은 민족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제국적인 맥락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선의 대표적인 국학자들의 화랑도 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역사소설에 나타난 '화랑'이야기의 중층성

화랑이야기가 일본 동양론과 조선 '국학'의 경계 위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문학적 사례로 현진건의 『무영탑』¹⁵⁾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일제라는 시대적 배경을 신라로 대치하여 민족의 역사의식을 일깨워준 것”¹⁶⁾

14) 한상일,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새물결 2004), 201 쪽

15) 현진건, 『무영탑』, 『한국소설문학대계』(7)(동아출판사, 1995).

16)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삼지원, 1985), 236 쪽.

이라는 평가와 역사를 빌은 “낭만적 연애소설”이며 아사달에 초점을 맞추자면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예술가 소설”¹⁷⁾이라는 평가가 있다. 구체적인 평은 다르지만 기존의 연구사에서 이 소설을 현진건의 민족주의 의식이 투사된 소설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무영탑』의 중심서사는 아사달과 아사녀, 주만(구슬아가)의 삼각관계를 축으로 하는 낭만적 연애담을 주축으로 전개된다. 이 텍스트의 구조화에서 중요한 또다른 축은 금지(시중)·금성(당나라 유학, 한림학사) 부자로 대표되는 ‘지나화(중국화)’된 통치 엘리트와 유종(이찬), 금량상·경신 형제로 대표되는 ‘국선도(토착 문화)’ 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다. ‘사당파(事唐派)’와 ‘토착파’의 대립에서 작가가 중시하는 것은 토착파의 정신이다. 이러한 ‘국수적 정신에 대한 작가의 경도는 인물의 외모와 성격 묘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금지중은 “얼굴빛이 노리깡깡한데다가 수염도 없어 얼른 보면 고자”¹⁸⁾로 보이고, 이찬 유종은 “긴 수염이 은사실처럼 늘어지고 너그러운 두 뺨에 혈색도 좋”¹⁹⁾은 외모로 묘사된다. 성격도 “하나는 간간하고, 앙큼스럽고, 하나는 괄괄하고 호방”²⁰⁾하다고 대립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외모와 성격 묘사는 “늠름한 위풍을 갖추어 대하는 이의 머리를 절로 수그리게 한”²¹⁾ 젊은 화랑 경신의 비범함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정점을 이룬다. 외래 대 토착의 대립 축에서 보자면 아사달 역시 조선 고유의 풍류와 ‘흥’을 지닌 장인이다. 한민족 고유의 정신과 미덕을 지닌 경신과 아사달을 당나라 유학을 한 금지중의 아들 금성과 대립시키는 구도를 통해 작가는 고대문화의 본원적 특질을 근대 민족주의 사상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라 조정의 중진이자 토착파의 주장적인 이찬 유종은 “고리타분한 당학을 한 손으로 막아내고, 지나치게 흥왕하는 불교를 한 손으로 꺾으며, 기울어져 가는 화랑도를 바로잡을 인물”²²⁾을 사윗감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다. 그는 당학으로 대표되는 유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도 외래문화로 동일화하고, 이에 대항하

17)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창작과비평사, 1991), 82, 84쪽.

18) 현진건, 앞의 책, 135쪽.

19) 위의 책, 135쪽.

20) 위의 책, 135쪽.

21) 위의 책, 149쪽.

22) 위의 책, 141쪽.

는 고유의 문화로 화랑도를 설정한다. 유종이 자신의 사위로 짐지하는 경신은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론(征唐論)'을 주장할 만큼 사대주의와 모화사상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주만'이 선택한 아사달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통적인 토착문화의 정신과 미를 구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미적이고 장인정신에 투철한 구도자의 면모를 띠고 있는 아사달은 신라, 백제의 구별을 떠난 조선적인 풍류(신명)를 현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경신이 '무(武)'의 영역에서 조선 정신의 본류를 구현한다면, 아사달은 미적인 영역에서 조선 문화의 본류를 구현하고 있으며 작가는 이 미적 본질을 "흥(興)"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다.

조선적이고 본원적인 문화적 본류가 존재하며 이것이 퇴색한 것은 당문화에 대한 추종 때문이라는 『무영탑』 서사의 기본 구조는 앞서 언급한 단재, 춘원의 담론과 겹친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근대 일본이 문화적 내셔널리즘을 구축해간 방식과 흡사하며, 기원적인 것에 대한 탐색과 맞닿아 있다. 『무영탑』에서 강조되는 '승무정신'은 향후 총동원체제의 전쟁동원과 연결된 화랑도의 소환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대목이다. 『무영탑』에서는 '화랑도(국선도)'를 특히 '무(武)'와 관련된 정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전회의에서 문(文)과 무(武)를 둘러싼 시중 금지와 이손 유종 사이의 대립 장면²³⁾은 작가가 소환하는 화랑도가 조선 정신의 원류와 관련되며, 그 정신의 원류가 무사혼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영탑』에서 무사혼에 대해 강조하는 논리는 불과 2~3년 뒤 『國民文學』에서 '화랑' 정신을 통해 '사무라이' 정신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논법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진건이 화랑정신을 사무라이 정신과 동일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영탑』이 일본 동양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화랑도를 매개로 조선정신을 실체화하고자 하는 이 소설의 서사는 '지나적인 것'과 대척점에 있는 본원적이고 고대적인 조선문화(정신)를 전제한 이광수 등의 논리가 동양론의 구조 안에서 발화될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무영탑』을 무한·삼진 함락 등의 중일전쟁에서의 일련의 전승과정과 함께 전개되는 일본제국의 동양론의 자장 안에서 읽으면, 화랑도를 중국문화로부터 독립된 독창적 정신의 상징으로 구성하고 있는 『무영탑』의 내셔널리즘의 욕망은 일본 동양사가 중국을 배제

23) 위의 책, 391~393쪽.

하면서 구축했던 고대사에 대한 내러티브에 수렴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화랑도를 본질화하며 조선의 자기구성에 활용하는 『무영탑』의 서사전략은 그 발표시점의 맥락에서 보자면 중층적인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려는 내셔널리즘의 욕망에 의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국 일본과 대타적인 저항적 주체를 구축하거나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균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총동원체제와 화랑도 이데올로기

1940년대에 들어서면, ‘조선’은 제국 일본의 한 지방으로 통합되어 가고, ‘조선 문화’는 제국문화의 부분이 될 것을 요구당한다. 화랑 표상도 일본이라는 타자와 구분된 ‘조선’의 자기 구성에 필요한 전통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공통 기원을 증거하는 사례로 맥락화된다. 국가 총동원체제의 수립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해야 했던 제국 일본은 ‘충’ 이데올로기와 ‘무사도’적 일본정신을 설파하는 전거로 신라의 ‘화랑도(국선도)’를 활용하였다. 무사도와 화랑도는 각기 일본정신과 조선 본래의 정신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고대에는 하나였다가 이후에 나뉜 것으로 설명된다. 고대사에 대한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고대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재구성되고, ‘조선’은 현실에서나 기억의 영역에서나 일본제국의 확장된 동일자로 자리 잡게 된다. 테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는 「我はみがく大和に通ふ床(우리가 닻을 야마토로 가는 복도를)」에서, “신공황후가 배를 띄워 신라로 향하고 물고기 무리와 같이 떠난다(남쪽의 바다는 불을 뿜고) 우리의 황량한 혼은...”²⁴⁾이라고 읊고 있다. 이 시는 신라를 정벌했다는 신공황후²⁵⁾의 고사를 통해 ‘일본과 신라’, 즉 ‘내선’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 정신이 ‘대동아시대에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의 발화는 당대의 저널리즘과 시국 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24) 寺本喜一, 「我はみがく大和に通ふ床を」, 『國民文學』, 1942. 1, 66-68쪽(일부 번역 인용).

25) 진구우 황후는 추우아이(仲哀) 천황의 비이다. 이름은 오키나가 다라시 히메(氣長足姫)로 추우아이 천황이 쿠마소(熊襲) 정벌 때 전사하자, 대신 나서서 시라기(新羅)를 원정, 복속시켰다고 전해진다.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다.

테라모토의 시가 고대 신라를 대동아의 복판으로 불러내듯이, 급기야 고대의 신라무사 '화랑'은 현재의 '대동아 전쟁'의 전장으로 소환된다. 1943년 10월 20일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며, 11월 14일 중의원에서 학도병 미지원자에 대한 징용령이 아울러 의결되어 당시 전문학교 이상 재학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 대부분은 징병과 징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²⁶⁾ 이때 각 계의 명사가 신문지상에서 혹은 직접적인 강연에서 학병 출진을 독려하며 전거로 활용하고 있는 유력한 논리가 '화랑도'의 사적이다. 이 시기 학병 권유의 친일문장을 모아 엮은 정운현의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²⁷⁾에는 일련의 징병제와 관련한 조선인들의 당대적 사고의 맥락이 생생이 드러나 있다. 이들의 논리에는 일종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주체화의 논리'와 '崇武의 감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병 권유문들은 징병제 달리 말하면 피식민자에게 무기를 주는 상황을 이전까지의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국민적 평등이라는 뱃가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피)이 필요하다는 주체화의 논리를 제시한다.²⁸⁾ 이와 함께 옛 조선의 병폐와 멸망이 '文弱'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자질이 '武'의 정신이라 주장하며, 그것을 화랑도로부터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²⁹⁾

-
- 26) 학병거부 후 도피생활의 수기를 적은 하준수, 「新版林巨正: 학병거부자의 수기」, 《신천지》 1946. 4, 97쪽은 고이소(小磯) 총독이 고시문을 통해 학병지원을 거부하면 '징용으로 보내어 노역에 종사시키겠다'는 고시를 포고했으며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동류는 빛나는 사관후보생으로 전지에서 공을 세울 때 너희들은 하잘것없는 노역부로서 그들에게 호령받고 멸시당할 수치를 생각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27) 정운현(유희),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없어지지않는이야기, 1997). 이하 학병권유문은 이 책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28) 가령, 김성수,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 크다」, 《매일신보》1943. 11. 6 라는 기사는 이러한 논리에 충실하다. 현재 벌어지는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동아의 일본자는 그만 두고 황민으로서 훌륭히 제국의 1분자가 될 수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이 나가 죽음으로써 그 피값으로 '동생과 누이'들이 제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리라는 이야기이다.
- 29) '학방'이 전문이상의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랑도 담론이 학병 출진의 권유에 활용되게 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명사들은 화랑을 신라의 청년 엘리트로 인식하고 특히 문/무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조화체로 표상한다. 전문이상의 조선인 학생들은 현재의 화랑이며 조선의 신홍 귀족 엘리트인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병을 나간 학생들의 인식에도 자

이러한 논법은 이 시기 《매일신보》 지면에서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저명한 인사의 특징적인 수사 몇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최남선은 시국에 당면하여 말못할 고민을 물어오는 당대 조선청년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그들에게 대한 대답으로 “원광법사가 세속5계를 말하고 특히 「임전무퇴」 1조를 강조하며 시대청년의 心撈가 이 일침에 탁 터져서 아무 遲疑함 없이 濟時巨難의 대업으로 출진”³⁰⁾ 하였다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조선청년에게 ‘임전무퇴’의 계율을 도덕적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에서도 ‘임전무퇴’라는 계율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이 계율의 강조를 통해 전쟁에 임하고 죽음으로써 천황에 대한 ‘충’을 구현하라는 의미이겠거니와,³¹⁾ 이러한 무사의 감각은 앞절에서 살핀 棼무의 대비에 근거한 조선사 내러티브를 통해 재현된다. 예를 들면, 안재홍은 “우리의 역사에도 고려 말엽부터 崇文賤武의 사상이 반도를 휩쓸어 이조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그 경향이 농후하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무사정신을 결한 이조 중엽의 우리 祖先을 원망하기 전에 제군은 멀리 신라의 화랑도와 고구려의 상무정신을 상기하라”³²⁾라고 신채호가 주조한 내러티브를 활용하며 학병지원을 독려하고 있다.³³⁾ 이들 사회 명사들의 학병권유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본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병권유에 동원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명사들이 화랑 표상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연스럽게 내면화되었다. 즉 식민지 말기 징병제는 민족의 수난사로만 단선화해서 파악할 수 없는 학병과 지원병의 신분의 차이라는 계급적 문제가 개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0) 최남선, 「보람있게 죽자: 「臨戰無退」空論無用, 《매일신보》, 1943. 11. 4.

31) 퇴경 권상로도 「한번 크게 죽는 정신, 영원불멸의 생명은 「충」에서 난다(《매일신보》, 1943. 11. 29)에서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거론한 후 임전무퇴를 학병들의 실천공행할 하나의 신조로 제시한 후 충과 의를 다하는 것을 成道라고 정의하고 있다.

32) 안재홍, 「특집: 학도에게 고한다, 《매일신보》, 1943. 11. 15.

33) 이러한 ‘武’에 대한 감각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조만식의 학병독려의 문장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이 땅에도 장구한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무인의 늙은 대오가 다시 소생되었다 제군의 선배된 우리들이 그처럼 숙원하고 고대하던 武裝반도가 지금 제군의 세대에 이루어지려 함을 목전에 보게되었으니 이 이상 더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무인의 재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제군의 광영, 반도의 영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특집 학도에게 고한다 《매일신보》, 1943. 11. 16.)고 쓰고 있다. 윤치호와 함께 한국 개신교를 이끌었던 양주삼도 학병권유문에서 “반도의 文弱을 일소하고 武의 전통을 이곳에 창조(「虎班傳統을 創造 敵國의 學生兵을 치자」, 《매일신보》, 1943. 11. 8.) 하자고 주장한다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사들의 화랑도 이데올로기의 소환을 통한 학병 권유가 실제 그 권유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이 출정하면서 남긴 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각 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배 집단과 사회명사들이 화랑을 활용한 수사를 동원하여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청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득되었는가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명륜전문 2년생인 岩本壯雄은 「용감히 순국의 길로」에서 “우리는 먼 신라시대 청년들의 의기와 용감성을 잘 알고 있다. 그 피를 이은 우리로서 어찌 추호라도 주저함이 있으랴”³⁴⁾고 자신의 학병출진을 신라 청년, 즉 화랑도의 이념과 결부시키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학병권유 프로그램은 저명인사와 출신자들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출신자 가족 그 중에서도 징병의 최대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주부들에게도 향했다. 이 시기 학병 권유의 공식 담론에서 화랑과 관련한 고사는 조선 여인들이 ‘군국의 어머니’로서 자세를 확립하기를 독려하는 전거로 활용되었다. 일례로 《매일신보》의 한 특집에서는 반도 여성이 “상무적 교양에 힘써 군국의 어머니로서 손색없는 총후여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며 “출진 학도와 어머니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신라시대의 화랑의 정신과 그 어머니에 대한 말”을 사학자 이병도에게 청하고 있다.³⁵⁾ 이병도는 화랑을 문약한 왕조 조선과 대비시키고 화랑의 임전무퇴의 정신을 설명한 후, 화랑의 상무정신이 여성들에게도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천관녀 일화를 통해 김유신이 사사로운 연정을 끊고 국가를 위한 대공을 세운 것이 그 어머니의 ‘상무적 교양’에 의한 깨우침에서 비롯했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원술랑 이야기를 통해 원술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을 ‘군국의 어머니’ 상으로 주조하고 있다. 원술의 고사는 삼국사기에 간략히 기록된 기사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당병과 싸우다 패해 적진에 돌진해 죽으려다 부하의 만류로 살아 돌아오자 김유신이 이를 치욕스러워 하여 원술을 평생 만나주지 않고 죽였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아 찾아간 원술에게 그 어머니인 지소부인 역시 자신도 원술의 어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이병도는 신라 부녀들의 자식 교육이

34) 岩本壯雄, 「용감히 殉國의 길로」, 《매일신보》, 1943. 11. 7.

35) 이병도, 「<出陣學徒에게 보내는 말> 어머니의 굳센 격려, 전투용기를 백 배나 더하게 한다」, 《매일신보》, 1943. 11. 26.

충용한 화랑을 길러냈다는 전거로 이 고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는 출진하는 학병들에게는 원술의 고사를 통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치욕임을 강조하고, 그 어머니들에게는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명예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술’의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러한 기사로뿐만 아니라, 문학텍스트로도 창작된다.

이광수의 「元述の出征」³⁶⁾은 앞서 살핀 삼국사기의 기록 위에 원술의 정혼녀 아좌희라는 인물을 추가하여 구성한 단편이다. 원술은 비록 부하의 만류 때문이기는 하지만 “임전무퇴”라는 신라 무사의 계율을 지키지 못한 채 “죽을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에게 아들이라고 혹은 남편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신인에게도 버림받은 몸”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서 작가가 식민지의 독자, 특히 학병 대상자들에게 발화하고 있는 것은 원술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죽음의 권유이다. 김유신과 그 처인 지소부인의 태도는 제국 일본이 반도의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대표한다. 죽지 못하고 돌아온 자식을 평생 보지 않고 죽는 김유신의 사적이나, 특히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돌아온 원술을 만나주지 않으며 자신이 그 어미임을 거부하는 지소부인의 면모는 이른바 ‘상무적 교양’에 바탕한 ‘군국의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는 역사상의 인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소부인은 자식을 전장에 보내지 않으려는 반도의 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술의 처인 아좌희는 3년 여 동안 숨은 원술을 찾아 해마다 견성암에서 해후, 그에게 매소천성의 당군과의 전투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로 그려진다. 출정하려는 원술에게 하룻밤만 출정을 유예하고 자신이 지은 밥을 먹고 가라는 소박한 소망을 말해보지만, “화랑의 처답지 않다”는 원술의 질책에 금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출정시키며 견성암에서 원술의 무운장구를 빌다가 “화랑의 아내답게 죽겠습니다”고 자신의 결의를 밝힌다. 이 역시 전장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총후’의 총력전에 동원되도록 강요된 당대 조선 여성을 향한 발화라고 할 것이다. 이광수의 「元述の出征」은 이처럼 저널리즘의 화랑도 이데올로기를 『삼국사기』의 기사를 원용한 서사를 통해 학병들에게는 ‘임전무퇴’의 항목을, ‘조선반도’ 여인들에게는 지소부인처럼 상무적 교양을 갖춘

36) 香山光郎, 「元述の出征」, 《新時代》 1944. 6.

‘군국의 어머니’, 혹은 ‘화랑의 아내 아좌희처럼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총력전에 가담하는 총후부인³⁷⁾이 될 것을 독려하는 서사인 셈이다.

III. 해방 이후 국민국가 건설과 ‘화랑도’담론

1. 민족으로의 귀환과 화랑 이야기

해방기,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모색하는 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상적인 국민의 자질로 ‘무사 와 그 정신이 소환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기 민족으로의 귀환의 서사에서 화랑 이야기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고려한 전통표상이었다. 식민지 시기 학병으로 일본 제국의 ‘대동아전쟁’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청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병 출정을 강압에 의한 것으로 서사화 하면서, 또한 향후 독립되었을 때의 군사적 준비를 위한 참전이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가 하면, 조선인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등의 일련의 ‘학병’ 서사를 만들고 있다.³⁸⁾ 민족이라는 대문자의 동일자 안에서 하위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웠던 학병 출신의 모임 ‘학병동맹’의 기관지 《학병》 1호의 「학병은 도라왔습니다」에서 귀환 학병 이춘영은 불과 몇 년전 자신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던 선배 및 사회저명 인사들이 귀환한 자신들에게 그러한 열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윤리적인 비판을 가하며 자신들을 ‘신조선 건설의 주체로 명명한다. 이어서 그는 學兵이 글자그대로 “「學」이고 동시에 「兵」”으로 “왼손에는 학리적 이론을 들고 바른손에 피 보다도 진한 투쟁의 旗(깃발)을 들어”³⁹⁾ 삼천만의 ‘전위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문(學)’과 ‘무(兵)’를 통합한 신조선 건설의 전위라는 담론은 이춘영이 민족의 이름으로 윤리적으로 비판하

37) ‘군국의 어머니’와 ‘총후부인’ 담론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은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책세상, 2005);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파시즘 체제하의 문학, 여성,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1집(2005) 참조.

38) 「귀환학병진상보고좌담회」(《신천지》, 창간호, 1946. 2.)에는 ‘학병동맹’원 20여명의 학병체험과 학병을 거부하고 도피했던 체험 등이 나와 있다.

39) 이춘영, 「학병은 도라왔습니다」, 《학병》, 1집, 1946. 1, 11쪽.

고 있는 선배 명사들이 학병출진을 독려하며 활용했던 화랑 담론을 좌파 버전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화랑관’⁴⁰⁾이라는 표제 하의 칼럼의 편집은 의미심장하다. 해방 조선에서 학병 및 청년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글로 채워진 란을 ‘화랑관’이라고 명명한 의도에는 신라의 리더였던 화랑에 견주어 자신들을 신생 조선의 리더로 자임하는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기 좌파들에게도 신라와 화랑을 활용한 자기 구성 작업의 흔적이 엿보인다. 문학사를 마르크스주의의 사적유물론의 체계에 맞추어 서술한 문학사가 이명선은 『조선문학사』에서 신라 시대의 문학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기고 있다.

원래 서사시는 전쟁을 주제로 하는 것이 많으며 민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민족영웅을 그리는 것이 많다. 삼국통일 이전의 약 1세기간은 서사시 산출에 최적의 현실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이 영웅적 시대의 꽃이라고도 할 화랑도 자신이 歌樂으로 相悅하여 詩作의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랴
물론 이미 계급 분화가 진행되어 사회와 개인과의 대립은 면할 수 없었으나 화백의 제도로 삼국 중에서 유독하게 민주적 정치를 실시한 신라는 적어도 귀족들 사이에서는 희랍의 자유민들 사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민주정신이 왕일해 있었다. 희랍을 <순조롭게 자란 어린 아이>라 하고 희랍시대를 소위 <고전적 고대>라고 한다면 신라는 조선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순조롭게 자란 어린아이>였으며 신라시대는 <고전적 고대>에 가까운 시대였다. 신라의 예술을 볼 때 희랍을 연상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⁴¹⁾

마르크스주의의 사적유물론에 비춰보면 신라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랑 이야기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접근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명선에게 신라 시대는 오히려 조선의 역사 중 가장 민주적인 시대로 표상되었고, 그 시대의 문학은 마르크스의 그리스 문학에 대한 찬탄을 활용한 어법으로 상

40) 《학병》, 1집(1946. 1), 54-60쪽에서는 ‘화랑관’이라는 표제하에 「청년의 의기를 논함」, 「해방 여성에게 주는 말」 등의 기사를 실고 있는데, 표제와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서 ‘화랑=해방기 청년’이라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41) 이명선, 『조선문학사』(조선문학사, 1948); 여기서는 이명선 『조선문학사』(범우사, 1990), 56-58 쪽

찬되었다. 이명선이 모든 좌파들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좌파들이 신라시대와 화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도 단일한 것이 아니지만, 화랑과 신라 시대를 민족영웅의 서사시와 민주적인 시대로 표상하는 이명선의 시각을 통해 좌파적인 전통 표상을 통한 자기구성 작업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화랑 이야기 혹은 화랑이 살았던 신라 시대는 좌우파를 망라한 진영에서 새롭게 구상하는 '민족', '국가', '민족문화'의 구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 것이지만 그러한 구상과 표상화는 특히 우파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좌익과 변별한 우파 이데올로그들은 이러한 무사의 자질을 국민 정신의 덕목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여했던 통치 엘리트들과 이데올로그들은 화랑을 이상적인 국민의 전범으로 소환하고, 화랑도를 민족사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건국의 이데올로기로 정초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수행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이자 일민주의(一民主義)의 입안자인 안호상은 고대 한국의 통일이 신라의 '무사도 정신의 교육'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⁴³⁾ 안호상은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호소하며, '스팔타 청년' '토이기 청년'과 함께 '신라의 화랑소년'이 오직 국가를 위해 살고 죽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화랑도를 국가주의와 연관짓는다.⁴⁴⁾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그들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를 '송문천무(崇文賤武)'의 정신에서 찾았다. 그들은 화랑도를 하나의 이상적인 '무사'로, 또는 민족영웅으로 제시하며 그 계율 중에서도 '임전무퇴'의 항목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화랑도는 국민도덕으로 정립되어 갔으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무사로 고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 몇 년전 제국일본의 담론이 수행한 작업이었다. 신생 민족국가의 이상적 엘리트로서의 '화랑'이 수년 전에는 제국 일본의 이상적인 '신민(臣民)'의 자질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화랑을 통해 이상적 국민

42) 이명선의 『조선문학사』 중 「화랑도의 정신」 부분의 서술에서는 화랑도를 “고대 씨족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를 디디고 중앙집권제의 봉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신라 이데올로기”(51쪽)이라고 규정하는 좌파적 관점과 동시에 이 화랑정신이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며 유교적 폐해에 의해 왜소화되었다는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조선사의 내러티브가 혼재되어 있다.

43) 안호상, 「교육과 혁명」, 《생활문화》, 1, 20~21쪽.

44) 안호상, 「건국청년의 각오」, 《개벽》, 1946. 4.

상을 주조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담론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2. 대한민국의 건국과 화랑도의 건국이념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1948년 8월 15일 이후 ‘화랑’ 표상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군대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시화된다. 1949년에 ‘화랑’이라는 이름의 담배가 최초의 군용담배로 시판되었으며,⁴⁵⁾ 이후 군부의 핵심적인 인맥을 형성하는 육군사관학교가 ‘화랑대’로 표상되고, 또한 훈포장의 한 등급으로 ‘화랑’ 무공훈장이 제정된다.

남한 단정 수립 직후 화랑 표상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게 된 계기는 ‘육탄 10용사’의 기념사업과 그와 관련한 담론화이다. 1949년 5월 3일 인민군 1사단 병력 1천여 명이 송악산 능선을 따라 기습하여 38선 남쪽의 일명 ‘비둘기’ 고지를 점령했다. 이튿날인 5월 4일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김석원이 지휘하는 부대가 송악산 전선에 투입되었다. ‘황군’ 대좌 출신으로 남한 군부의 수뇌가 된 김석원의 지휘를 받은 이 부대는 제주도 4·3 봉기를 진압한 직후 이 송악산 전투에 투입되었다.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는 작전에서 수류탄을 들고 북한군의 토치카를 육탄공격하고 죽은 10명의 국방군을 육탄 10용사라고 명명하고 현창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훈본부에서는 『肉彈十勇士』⁴⁶⁾라는 공식적인 선전물을 간행한다. 이 책의 서장에는 경무대 비서관 김광섭의 시와 ‘십용사의 노래’가 실리고, 국방장관 신성모 총참모장 채병덕, 1사단장 김석원의 서문, 육군본부정훈감 송면수의 간행사가 게재되고, ‘비둘기고지육탄전기’와 함께 10용사 개개인의 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공적인 현창의 기록인 이 전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들 십용사의 정신을 ‘화랑 정신’으로 공식화한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서문에서 “화랑들은 국가민족을 위해 싸우다 국가민족을 위해 죽는 것을 화랑의 영광으로

45) 《동아일보》 1949. 5. 25일자 기사 「軍人專用 煙草 「花郎」을 製作」에서는 화랑 시판 기사와 함께 “국민에게 충실을 다하자”는 화랑담배의 로고가 소개되고 있다. 이 ‘화랑’ 담배는 한국전쟁기 유호 작사/박시춘 작곡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로 유명한 「전우야 잘자라」의 2절에서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라는 구절로 불려진 바로 그 담배이며, 1981년도까지 가장 오랫동안 시판된 담배이기도 하다.

46) 육군본부정훈감실, 『육탄십용사』(1949).

생각했던 것이다. 이곳에 비로소 화랑정신은 발전이 되어 신라통일의 성업은 이루어졌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이 거룩한 혼과 정신은 바로 우리 십용사들의 그 혼과 정신”이라고 연결시키고 이 정신을 새겨서 “조국재건 국가통일에 이바지 하는 인물이 되자고 호소하고 있다.⁴⁷⁾ 간행사를 쓰고 있는 정훈감 송면수는 북한을 일제 36년의 치욕 뒤에 “새로운 이민족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우리 민족을 버린 매국집단으로 규정한 후 “원수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총진군”을 할 지금 필요한 것이 “화랑혼”이라고 언급한다. 십용사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맨먼저 핀 화랑혼의 꽃”⁴⁸⁾으로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라 칭송되고 있다. 이들의 수사에서 ‘화랑정신’은 민족의 정신이지만 그것은 ‘남한 민족’만의 정신이며 북한은 혈족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을 버린 집단으로 타자화되고 있다.

이어지는 십용사 개인의 전기도 화랑에 기댄 수사가 가득하다. 수류탄을 들고 토치카를 파괴하고 죽은 10용사의 행위는 황산벌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신라군의 사기를 올린 반굴, 관창의 일화와 비견된다. 첫 번째에 위치한 서부덕 소위의 전기에서부터 화랑혼에 대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황산벌 싸움터에서 단신 적진으로 주검을 찾아 돌진한 이팔청춘의 반굴 관창 두 화랑의 거룩하고 위대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배달혼의 찬란한 꽃”⁴⁹⁾으로 묘사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죽은 십용사의 행적을 “화랑혼을 만든 거룩한 열혼(十魂)은 송악산 기슭에 꽃과 같이 졌다”⁵⁰⁾고 대응시킨다. 윤옥춘의 전기에서는 학창 시절 윤옥춘이 일요일이면 “젊은 화랑 반굴 관창 두 소년이 적진에 돌입하여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초개 같이 버린 곳”⁵¹⁾인 황산벌의 인근인 부여를 찾아 가서 시를 지으며 화랑 정신을 내면화한 것으로 서술하고,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반굴 관창 두 소년과 같이 죽을 수 있는 때”⁵²⁾를 찾아 출가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윤옥춘 전기 집필자의 인식에서는 윤옥춘이 부여를 찾아 가던 그 학창시절이 ‘대동아전쟁’이 한창이었던 식민지 말기였으며 화랑의 표상이 총동원의 레토릭으로 활용되었던 시절이

47) 신성모, 「서문」, 위의 책

48) 송면수, 「십용사전을 내면서」, 위의 책

49) 위의 책, 14쪽

50) 위의 책, 20쪽

51) 위의 책, 43쪽

52) 위의 책, 45쪽

라는 기억은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 윤옥춘이 떠올렸을 화랑들의 ‘충’이 어느 국가로 수렴되는지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충’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호소하는 자동화된 ‘클리셰’로서 화랑 이야기가 대두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공적인 대의에 자신의 사적 욕망을 희생할 줄 아는 아이, 그렇게 훈육하는 부모,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 등, 십용사 전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위인전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십용사전의 구성과 레토릭은 특히 일제 말기의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선전되었던 동원의 담론과 동일한 것이다. 이 십용사의 어머니들은 일제 말기의 ‘군국의 어머니’의 재현이고, 십용사 자체는 “十軍神”으로 명명되며 일제말의 그 유명한 ‘九軍神’⁵³⁾ 이야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십용사’와 관련해서 저널리즘이 뽑아낸 ‘화랑’ 운운의 표제들과 육군 정훈국의 『십용사전』은 식민지 시기 만들어진 ‘총용의 화신’으로서의 화랑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표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武’와 ‘애국’의 상징으로서의 화랑이라는 단편적인 표상화를 넘어서 화랑도를 건국의 사상적 기반으로 체계화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업은 이선근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⁴⁾ 이선근은 ‘화랑’을 이상적인 국민의 표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랑도’를 민족사 전개의 핵심이념이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지반이 된 사상으로 체계화한다. 그는 『화랑도 연구』⁵⁵⁾를 통해서 한국사 전체를 화랑도 정신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 저술은 단재 신채호가 「朝鮮歷史上 一千年來第一大事件」에서 제시한 ‘낭가사상 유교(사대) 사상’의 대립이라는 문법에 토대한다. 한국사를 낭가(고구려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도) 사상 대 유교의 대결로 바라본 신채호의 기본 도식을 구체화하면서, 고려와 조선조 이래 화랑도 정신이 퇴색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근세 이후 동학혁명과 3·1운동을 화랑도의 이

53) 1942년 이후 태평양전쟁 때 진주만에서 죽은 9명의 일본군을 ‘구군산’으로 명명하고 선전하는 대대적인 프로파간다가 있었다. 일례로 이광수는 「진주만의 九軍神」(《신시대》, 1942. 4)이라는 시에서 이들 9명의 무용을 노래하고 있다.

54) 해방 직후 및 남한 단정 수립 직후에 화랑을 언급한 많은 간행물들이 있다. 왕명 『오천년 조선사 화집』(조선출판사, 1946); 김동인 『화랑도』(상·하)(한성도서 1949); 이은상 『화랑도』(계림사 1950) 등은 그 사례이지만, 화랑도를 남한 건국의 기반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선근의 저작이 이 시기 화랑담론을 대표한다는 판단에서 그의 저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55) 이선근, 『화랑도 연구』(해동문화사 1949).

념과 연결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사상으로 설정하고 있다.⁵⁶⁾ 이선근이 수행한 작업은 화랑도를 한국 고유의 사상, 정신으로 정초하고 이것을 다시 현대의 조선에 투사하여 민족국가의 이념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고대 신라와 현대의 대한민국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화랑도는 고대로부터 현재의 대한민국에까지 연면이 그 정신이 이어져 있는 자주, 독립, 민주주의 정신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는 이 저서의 곳곳에서 반복하여 화랑도의 사적을 민족사적 관점에서 해설한 후 그것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발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와 현재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동일시되고 '청년 신라'는 '청년 대한민국'으로 치환된다.

그는 화랑도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그들의 조직원칙은 덕망과 인격과 용의를 표준으로 중의를 존중하였으며 나아가 남녀의 차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든 모양이니 권모술수나 허위기만을 대기(大忌)하고 음해와 사투를 엄계하면서 남녀균등의 대우를 지켜온 것은 확실히 신라의 건국초부터 시범하여온 우리 민족 고유의 민주주의 방식”⁵⁷⁾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의 청년들이여! '민주주의' 네 글자만 나타나면 미국식이나 소련식이나 하여 골머리를 알기 전에 우리 선민들이 뱉어온 이 화랑도 속에도 남부끄럽지않은 민주주의 방식이 숨어있음을 깨닫고 이를 찾아보며 이를 발양하여본들 그 무엇이 부족하라”⁵⁸⁾라고 화랑도를 한국적 민주주의 원리로 정립하고자 한다.⁵⁹⁾ 골품제가 말기까지 엄격히 고수되

56) 이선근은 화랑도를 매개로 스스로를 단재와 동일한 계열에 위치짓고 민족사 서술자의 자리를 점유한다. 이 저서의 마지막 보유란에 신체호의 상기 논문을 실고 해설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선근은 단재를 “생존해 계실 때 뵈을 기회를 갖지 못한 나의 스승이시다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 선배로서 보다는 위대한 사학자로서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사모하고 존경하여왔다”(이선근 위의 책, 203쪽)고 언급하고 있다. 와세다를 졸업,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로 활약하다 만주로 이주 농장을 개척 일본제국의 국책에 적극협조하며 협화회의원을 역임한 이선근의 이력(정운협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개마고원, 1999) 참조)은 신체호와 동일한 계열에 위치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는 화랑도 서술을 통해 자신을 신체호 계보의 사학자이자 혁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이선근의 자기상의 주조는 식민지 시기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망각하여 소거시키고, 자신의 이념을 신체호와 연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이념의 새로운 기원이 되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57) 이선근, 위의 책, 13쪽

58) 위의 책, 14쪽

59) 화랑, 혹은 신라 시대를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표상하는 작업은 이 시기에 광범위하게 이루

있던 귀족사회 신라를 남녀차별이 없고,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화랑이 될 수 있었던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설명하며, 화랑도의 원리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하고 선양하는 이러한 논법은 ‘武’의 측면만이 강조되던 이전의 화랑도 담론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화랑도가 발생한 신라 시대에 대한 서술을 마감하는 이선근의 진술에서 그가 화랑도 연구를 수행한 당대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화랑도 생겨서 불과 1세기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능가할 수 있었고 당인의 팔년주병도 격퇴하여 민족통일의 대기업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니 화랑도는 우리민족의 독립정신이고 자주통일의 기본이념인 것”⁶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가 화랑도를 문제삼는 것은 화랑도가 통일의 이념이 될 수 있고, 외세(미국, 소련)를 구축할 수 있는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소환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논법 속에는 ‘남한(대한민국)=신라, ‘북한 고구려 백제’, ‘당나라=미국, 소련’이라는 도식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¹⁾

이제부터 이 저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저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우선 화랑도의 출발지였던 삼국시대의 신라를 중심으로 화랑도 이념과 조직원리 등을 설명하고, 그것을 조선의 자생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이자 원리로 설정한 이후 이 정신이 후대에 어떻게 축소되었으며, 그 외중에도 어떻게 연면히 이어졌는가를 통시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선근의 논의는 단재가 주조한 조선사 내러티브를 세밀하게 재현하면서 진행된다. 그는 국난기의 무장들을 고평하면서 유가의 사대성과 당파분쟁 등을 여기에 대비시킨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조에서는 윤관의 여진족 정벌과 9성 축조, 묘청란 등을 언급하며 당대의 북벌론과 무장들의 정신을 화랑도의 계승으로 파악하고 김부식 등의 사대파를 비판한다. 이

어진 작업인 듯하다. 일례로 해방기에 유소년기를 보낸 유중호는 『나의 해방전후』(민음사, 2004, 18쪽)에서 해방직후 학교에서 배운 가장 영광스러운 과거가 신라시대였으며 그 시대가 “만장일치체로서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성사가 안 되는 민주적인 화백제도,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다섯 가지 계율을 목숨보다 존중했던 화랑과 화랑도” 등으로 묘사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60) 이선근, 앞의 책, 24쪽.

61) 남한을 신라로 투사하여 당대 세계정세를 삼국시대의 동아시아 정세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감각은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정주의 『우남이승만진』(華山, 1995, 259~265쪽)의 중판본 발문에서 허문도는 ‘이승만을 미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다시 그로부터 자주 독립할 수 있게 한 인물로 묘사하며, 그에게 삼국시대의 ‘신라와 화랑정신을 투사하고 있다

어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화랑도 정신이 멸살된 계기로 규정한 후 조선조의 봉당을 거론하며 유교의 사대주의를 비판한다. 당쟁을 통해 유가의 병폐를 극언하면서 이와 대비시켜 이충무공을 성웅으로 만드는 내러티브를 구축하며 충무공의 정신도 화랑도와 연결짓는다. 이순신을 성스러운 영웅의 반열에 두는 성웅 내러티브⁶²⁾의 서술 이후, 이선근은 그러한 이순신의 행적과 정신을 화랑도와 연결지으며 그를 꺾박한 유가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수행한다. 이순신의 행적과 정신을 화랑 정신으로 등치시키는 이러한 이선근의 작업에서 남한 건국 전후에 화랑 표상이 국가의 의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벽두에 이순신 기념비의 제막식을 보도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표제는 인상적이다. 《동아일보》의 「빛나다 화랑의 정신: 충무공기념비제막식성황」⁶³⁾이라는 기사에서는 “임진란 당시에 신병기 거북선을 창조하여 남해각처에서 일병을 못찢러 우리의 국토를 방위하고 **화랑정신을 천추에 빛나게 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는 수사가 보인다.⁶⁴⁾ 이를 통해 화랑정신이 국가건국기의 남한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가 부여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효종과 현종 대의 북벌론에 대한 간단한 서술 이후, 이선근은 자신이 이 저술을 쓰게 된 진정한 이유인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화랑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대목이야말로 화랑도라는 전통 표상을 통해 남한 국가의 정통성과 주체성의 근거를 정초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그 이선근의 야심찬 전략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선근은 동학을 화랑도 정신이 근대에 이어진 가장 적실한 사례로 제시한다. 동학의 교조인 최제우가 화랑도의 발상지인 경주 출신이며, 그의 선조가 난랑비 서문의 저자인 최치원이라는 점, 또한 최제우가 입산수도하여 득도하고 그와

62) 이순신을 ‘성웅’의 반열(110쪽)에 올리는 서사를 통해 박정희 시대의 이순신 숭배의 기반을 엿볼 수 있다. 이선근이 이후 남한 교육계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주인백인 동시에 이상적인 ‘무사 상과 무사도의 정신을 내러티브화함으로써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주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63) 《동아일보》 1950. 1. 9.

64)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 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2005)에 따르면 1966~1969년에 이르는 이순신 및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통해 충무공 성웅화 작업은 정점에 오르며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시 충무공 정신이 ‘화랑도의 이조적 중흥’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영구(「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호(2004), 345~355쪽)는 과당성의 증거로 활용되는 이순신과 임진왜란은 총화단결의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지적한다.

중에 선인이 비결을 준 것이 김유신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 등의 비논리적인 유사성을 매개로 화랑도는 동학과 연결된다. 비논리적인 이러한 근거로부터 시작하여 동학이 유불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거기에 기독교의 천주를 원용한 방식이 최치원이 난랑비 서문에서 밝힌 풍류도의 구성 방식과 동일한 것임을 밝히며 한국의 전통적 사상으로 계승된 화랑도가 동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동학의 폭접 등의 조직원리도 화랑의 조직원리와 대응되며, 동학혁명도 화랑도가 평상시에 수양을 위주한 교단의 범위를 지켜오다가도 국가와 민족에 위난이 닥쳐올 때에는 정치와 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여 행동했던 것의 재현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선근은 “동학은 우리 민족고유의 신앙이요 전통인 화랑도의 계승”이며 “천도와 더불어 민족의 신앙 민족의 전통을 깨우쳐 주고 나아가 자주독립이 무엇이며 호국구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은 화랑도가 쇠미한 이래 오로지 동학도가 있을 뿐”⁶⁵⁾이라고 화랑도와 동학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화랑도의 계승인 동학은 다시 3·1운동의 기반으로 제시된다. 이선근은 3·1운동 민족대표의 출신성분을 분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3·1정신은 민족대표 33인의 성분을 통해 “기독교, 천도교의 반분씩의 역할과 여기에 불교 2인의 결합, 교육계, 청년학도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망국의 표상이었던 유교는 3·1운동에서도 철저히 배격되었다. 이러한 성분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국선사상인 화랑도(동학)와 이에 동조한 불교, 그리고 근대 이래 외국에서 들어온 민주주의 사상이 결합하여 3·1운동을 일으켰다는 내러티브가 가능해졌다. 3·1운동 정신의 중심은 민족정신인 화랑도와 결부된다. 이러한 설명 이후 ‘화랑도→동학→3·1정신’은 드디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건국정신과 결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구절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를 해설하며 이선근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확실히 3·1정신의 계승이니 3·1정신은 곧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요 신앙인 화랑도와 동학도와 천도교를 거쳐 기미운동에 빠진 사상적 요소를 뼈로 한 것이며 이에 다시 근대세계의 민주주의 사조를 수입함으로써 민족적 자각 아래 체득발견한 독립정신이 갑신정변을 거치고

65) 이선근, 앞의 책, 181쪽.

독립협회를 거쳐 기독교로부터 기미운동에 빠친 사상적 요소를 살로 한 것”⁶⁶⁾이라고 체계화한다. 이선근이 『화랑도 연구』를 통해서 수행한 작업은 조선 고유의 정신을 ‘화랑도로 본질화하여 그것을 자기구성의 기원으로 삼으면서 한국적 주체성의 원천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화랑도를 동학 및 3·1 운동과 연결지음으로써 현대 남한의 건국이념의 기반으로 승격시키고 분단시대를 해소할 수 있는 남한의 국가정신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선근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민족문화’라는 개념 속에는 민족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지속되어온 변화불변의 본질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강고한 신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은 각 시대와 주체의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선택되어 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다. 화랑 이야기는 근대 초기 지식인들이 ‘조선이라는 자기구성을 위해 조선 정신의 원류로 소환한 이래 이러한 불변의 ‘민족정신(문화)’, ‘전통’이라는 신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실체로서의 화랑이 무엇이든 간에,⁶⁷⁾ 화랑담론은 담론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또는 그 담론화의 주체에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화랑도가 조선인의 자기구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식민지 시기의 담론화과정과 식민지 말기 총동원체제에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던 사정, 해방직후, 남한 건국직후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화랑 표상과 그 이데올로기는 이후 남·북한에서 다르게 변주되고, 남한에서도 한국전쟁기, 전후인 1950년대와 그 이후의 박정희 시대에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다.⁶⁸⁾ 문학의 영역에서만 국한해서

66) 위의 책, 198쪽

67) 화랑의 실체와 관련하여 민족주의를 벗어난 상상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박노자의 「화랑들이 ‘변태’여서 부끄러운가(《한겨레신문》, 2006. 9. 1.)의 지적은 화랑 표상과 관련된 민족주의적 강박을 비판하고 있는 한 사례이다.

68) 이를테면 한국전쟁기에 잡지 《화랑》(화랑구락부 출간)이 출간되고 전후에는 《사상계》 등의

보더라도 김동리, 서정주 등의 남한 문단 초창기의 주류들은 화랑으로 대표되는 신라정신을 축으로 하여 남한식 민족문학을 구성해 갔다. 북한을 포함한 1950년대 이후의 화랑 표상에 대한 검토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과시즘 체제하의 문학 여성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1, 2005, 71~114쪽
- 권명아, 『역사적 과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서울: 책세상, 2005.
- 김병걸·김규동(편), 『친일문학작품선집』. 서울: 실천문화사, 1986.
- 노영구,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 호(2004), 338~358 쪽
- 단체신체호선생기념사업회, 『단체신체호전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2.
- 박노자, 「화랑들이 ‘변태’여서 부끄러운가」. 《한겨레신문》 2006. 9. 1.
- 삿사 마즈아키(佐佐充昭),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대중교·단군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논문, 2003.
- 서정주, 『우남 이승만전』. 서울: 화산문화기획, 1995.
-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서울: 삼지필, 1985.
- 에릭 홉스봄(외)/박지향·장문석(옮김),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 유중호, 『나의 해방전후』. 서울: 민음사, 2004.
- 육군본부정훈감실, 『육탄십용사』. 서울: 육군본부, 1949.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비평사, 2005. 241~277쪽.
- 이명선, 『조선문학사』. 서울: 범우사, 1990.

잡지에서 신라와 화랑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박정희 시대 ‘화랑교육관 등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사상교육 등도 한 사례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조선문학사』 및 다양한 역사서에서 신라의 3국통일을 외세의존적 사건으로 정의하며 고구려, 발해의 축에 북한을 계보화하는 역사 서술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내러티브 속에서 신라의 ‘화랑’의 자리는 축소되거나 무시되며 그 자리를 고구려, 발해의 반외세적인 ‘상무정산’이 차지하고 있다.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의 화랑 이야기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지면을 통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선근, 『화랑도 연구』. 서울: 해동문화사, 1949.
 이성시/박경희(옮김), 『만들어진 고대』. 서울: 삼인, 2001.
 정운현(엮음),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않는이야기, 1997.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서울: 개마고원, 1999.
 정중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5.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왕숙영(옮김), 『창조된 고전』. 서울: 소명출판, 2002.
 한상일,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서울: 새물결, 2004.

Vlastos, Stephen, ed., *Mirror of Modernity-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Tanaka, Stefan,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그외 일차자료는 각주로 대신함.

국문 요약

화랑이야기는 근대 초기 지식인들이 '조선이라는 자기구성을 위해 조선정신의 본질로 소환한 이래, 불변하는 '민족정신(문화)', '전통'을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화랑이야기는 담론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또는 그 담론화의 주체에 따라서 정치적·문화적 효과가 달라지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랑도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시기의 화랑이야기, 화랑도를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켜 체계화하고 있는 남한 국가의 이데올로그들의 화랑 담론을 검토했다.

식민지 시기의 화랑도 담론은 조선인의 자기구성에 활용되었던 민족주의적 표상이면서, 동시에 일본제국의 동양론의 맥락에서는 고대 일본정신과 고대조선(신라) 정신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내선일체'의 증거로 활용되었다. 특히 식민지 말기에는 태평양전쟁에 조선인 學兵을 동원하는 담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남한 건국 직후 화랑도는 이선근 등의 이데올로그에 의해 국가의 건국이념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 투고일 : 2006. 10. 10.

● 심사완료일 : 2006. 11. 27.

● 주제어(keyword) : 화랑도(花郞道, HwaRangDo),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조선정신'(the essence of Joseon spirit)